

군산이 가진 애환과 정서 영상으로 만나다

다큐멘터리 '군산전기:이방인의 도시' 시사회 24일 개최

군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애환과 정서를 영상으로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시사회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다큐멘터리 '군산전기:이방인의 도시' 시사회를 오는 24일 오후 5시,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군산전기:이방인의 도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군산에서 제작된, 군산이라는 도시의 애환과 정서를 재즈와 무용으로 이야기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다. '군산전기:이방인의 도시'는 25회 BIFF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18회 EIDF EBS 국제다큐영화제, 19회 SEIFF 국제환경영화제, 13회 SIAFF 국제건축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 전편에 걸쳐 흘러나오는 음악은 군산에 거주하는 국내 1세대 재즈 뮤지션 임인건 작곡가의 음악이며, 다큐멘터리 상영 전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해 관객에게 흥미와 관심을 볼

러일으킬 예정이다. 문승욱 감독은 폴란드와 한국의 최초 합작영화인 '이방인(안성기 주연)'을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영화 '내비'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비평가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건축과 도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층에서 실시되며 객석은 120석이 준비되어 있다. 또 문승욱 감독의 무대인사와 임인건 재즈퍼야니스트, 송상우 첼리스트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군산전기'를 통해 군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애환과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의 공유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군산시가 가진 문화공유도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군산전기:이방인의 도시' 포스터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합동발표회 'THE 함성' 성료

4개 분야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25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서 진행

완주군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 'THE 함성'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삼례생활문화센터(완주문화의집), 구이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이서문화의집이 협력해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완주군 생활문화센터(문화의집) 합동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는 각 기관의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각양각색의 실력을 선보였다.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춤비엔스, 난타 등 힘 있

고 신나는 무대를, 구이생활문화센터는 한국무용, 합창 등으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했다. 동상생활문화센터는 초등학생과 70대가 함께 색소폰 무대에 올라 감동을 선사했다. 이서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악기인 줄리하프로 친숙한 곡을 연주하여 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발표회는 에어컨 냉기도 뜨거운 열기로 날려버리고 5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음악에 맞춰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통기타 음악에 맞춰 노래도 불렀다. 3시간 가까이 되는 공연시간 후에도 앵콜을 외치며 현장에서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이번 공연 외에도 도예, 수채화, 캘리그라피, 민화 4개 분야 수강생 50명의 60여 작품의 전시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별도 개최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 없이 기쁘다"며 "생활문화센터에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완주군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방부장

백제문화예술협회 문화예술 창작공연 '초여름의 숨결'



익산시 비영리단체 백제문화예술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익산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문화예술 창작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백제문화예술협회는 민족 고유의 얼이 담긴 국악기의 소리와 무용과 더불어 지역문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가(歌), 무(舞) 그리고 시(詩)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계자는 "단일 장르 중심의 공연을 탈피하고 경계를 허물며 음악과 문학, 무용을 함께 감상함으로써 귀와 눈과 마음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영리단체 백제문화예술협회는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의 국악 예술을 선도하고 있다. 백제문화예술협회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사선대 야간경관과 즐기는 작은 음악회

임실군, 24일 유리상자 등 출연 한 여름밤 아름다운 무대 선사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 등 달콤하면서도 로맨틱한 음색으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가수 '유리상자'가 사선대에서 한여름 밤의 낭만을 노래한다. 임실군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관촌 사선대 야외무대에서 유리상자 등이 출연하는 '사선대 야간경관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최근 사선대에 야간경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사선대 야간경관 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계절꽃 식재, 연못 주변 경관조명과 이벤트 야경, 야간조명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콘셉트로 이뤄졌다. 음악회는 이달 24일을 시작으로 7월 22일, 8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24일 처음 문을 여는 작은음악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사전공연인 버스킹으로 한껏 분위기를 끌어 올린 후 오후 7시 본공연에서는 유리상자, 금현양상블 등이 출연하여 다수의 곡들로 한 여름밤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승화, 이세준으로 구성된 유리상자는 1996년에 데뷔해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 '순애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금현양상블은 가야금, 건반, 보컬 등으로 이루어진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밴드로 국악과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등 다양한 장르로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날 사선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음악회를 통해 소중한 추억과 함께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 사선대에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2회 브런치 콘서트 '행복한 동행'

클래식으로 토요일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브런치 콘서트 '행복한 동행'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브런치 콘서트는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특별히 군산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는 판소리 '김금희', 테너 '이재식', 전통타악그룹 '동남풍'과 함께 정오의 데이트를 진행한다.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다채로운 선율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시립교향악단의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La Valse(왈츠)'을 시작으로 테너 이재식 교수의 '박연폭포', '왜 나를 깨우는가', 판소리 김금희 교수의 '배 띄워라', 소담 소리아트 앙상블과 함께 '진도 아리랑' 등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진다. 또한, 군산지역 대표 타악 그룹 동남풍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탕'은 교향악단과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가 어울어져 경쾌하고 신명 나는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브런치 콘서트는 클래식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정기공연에 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평일 공연을 찾기 힘든 관객들도 음악회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획공연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